

전주시-전건협-라운건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MOU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전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라운건설은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라운건설 서울지사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장 중심의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주시의 민원 해결 및 건설현장 관리·감독 △라운건설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60% 이상 확보 △전건협 전북자치도회의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 등으로, 세 기관은 상호 협력하며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협약이 적용되는 사업은 전주시 평화로2가 일원에서 진행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다. 7개 동, 지하 3층~지상 29층, 507세대 규모로, 현재 부지조성 공정이 진행 중이다. 협약 체결로 전



문공종별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 확보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임근홍 전건협 전북자치도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뿐 아니라 향후 예정된 건설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회는 앞으로도 전주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전문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현장에서는 라운건설 관계자와 전북자치도회 임원, 전주시 담당자가 참석해 지역업체 참여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하도급관리팀 해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건설현장 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으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축과 지역건설지원팀과 함께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 방문, 지역업체 홍보, 참여 확대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지역업체와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앞으로 라운건설 시공 공동주택 공사와 향후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율과 현장 관리 수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장 사진에는 협약서 서명 장면과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건설현장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 지역 건설업체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주호성신협이 지역주민 화합의 장인 우아1동 '동민의 날' 축제에 함께하며 풍성한 나눔을 실천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축제 만들다

전주호성신협, 우아1동 '동민의 날' 후원

전주호성신협이 지역주민 화합의 장인 우아1동 '동민의 날' 축제에 함께하며 풍성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7일 전주역 첫마중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우아동 동민의 날 추진위원회(회장 신동선)의 주관으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무대에는 신동선 추진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범기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이명연 도의원이 차례로 올라 주민들과 기쁨을 나누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행사장에는 전주호성신협을 비롯해 대지인병원, 전북도시가스, 전북은행, 전주완예농협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700여 명의 주민들과 어우러졌다.

전주호성신협은 이번 행사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조합원 가입 상담 △신협 금융상품 및 복지서비스 안내 등 생활 밀착형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합동금융'이라는 이념에 걸맞게 다양한 후원물품도 준비했다. 신협 어부바 디자인 쇼방백, 보은·보녕 도시락가방, 생활용품 등 총 460만 원 상당의 5개 품목을 선물하며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김용식 이사장은 “동민의 날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신협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조합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남원시, 시군구연구산업육성

사업 수혜기업 네트워킹 성료

남원시가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난 30일 남원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에서 2025년도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 수혜기업 네트워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시군구연구산업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17개 수혜기업이 함께했다. 기업 대표와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지원사업의 이해 △기업별 주요 현안 공유 △협력 수요 발굴 △공동 프로젝트 논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상호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

특히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은 현장의 관심을 한껏 모았다. 참여 기업들은 실제 정부 지원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AI 기술로 체험하며, 계획서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익혔다. 현장에서는 “AI 기반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의 부담이 줄었다”, “정부 과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단장은 “이번 네트워킹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기업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산학연 기술연결 허브 'ILP 서비스 플랫폼' 출범

기술 수요·공급 잇는 다리... 지역 기업 혁신의 새 전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서비스 플랫폼을 지난 30일 공식 오픈했다.

이번 플랫폼은 도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역량을 연결하는 기술협력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ILP 서비스 플랫폼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분석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논문·전문가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협력 가능성까지 예측해주어, 기술

이전·공동연구·기술자문 등 실질적 협력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술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에서 오랫동안 제조업을 운영해 온 한 기업인은 “좋은 기술이 있어도 어디서, 누구와 연결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신속하게 매칭된다면 기업 혁신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 대상 '안아드림' 토크콘서트 개최

허진이 작가 초청 강연... 사회적 어려움 공유와 공감의 시간 마련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9일 전주시 카페 안화소록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드림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드림 ON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전북 지역 공공기관(전기안전공사·전북도·전북도지립지원전담기관·새만금개발공사·전북개발공사·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이 공동으

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 생활과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에세이 비밀에 기대어의 저자 허진이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상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후 스무 살 무렵부터 자립 생활을 시작한 허 작가는 결혼 후 아름다운재단

플랫폼의 개봉 소식에 대학과 연구기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 지역 한 대학 연구자는 “논문이나 특허로만 머무르던 연구성과가 이제는 기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며 “연구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ILP 플랫폼 출범은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AI 기반 추천, 성과 관리 모듈 정책 연계 기능을 단계적으로 더해 도내의 대표 기술사업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캠페이너로 활동하며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조언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문화·예술·돌봄 프로그램으로 온기 전해

전은지역사랑봉사단, 길보른사회복지관에 성금 4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일상을 돕기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냈다.

봉사단은 지난 30일 김제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성금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총 6천만 원 규모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15개 기관에 순차적으로 기부금이 전달되고 있으며, 이번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그 가운데 하나다.

김제시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특히 문화와 돌봄 영역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길보른종합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지역 현실에 맞춰 '농촌 라온 누리사업'을 제안해 이번 성금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성금을 바탕으로 복지관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문예마당'과 가을 작은 음악회, 주민·돌봄 프로그램인 '영양과일 도시락'과 '토릴 공예'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령 주민 500여 명이 풍성한 문화와 정서적 돌봄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권영세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원호 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노조 건부진 김범식 전북은행 김제지점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뜻을 함께했다.

정원호 위원장은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와 돌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